

01 교회소식

중남미 영혼들을 깨운 주님의 사랑

놀라운 하나님 권능의 역사와 생명의 말씀을 통해 중남미 영혼들에게 전해진 주님의 사랑이 아름답게 열매를 맺고 있다.

02 생명의 말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시리즈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생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03 기획특집

사랑은 율법의 완성

십자가의 사랑을 깨우친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다.

04 간증

"받은 축복이 정말 많아요~"

하나님 권능을 목도한 뒤 영혼이 잘돼 축복이 넘치는 구평서 장로와 손수건의 권능을 체험한 콜롬비아 앙헬리카 자매 간증.

만민뉴스

제632호 2014년 5월 4일 (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페루 연합대성회로 뜨거워진 중남미 선교

책자, 방송, 권능의 손수건 집회로 풍성한 열매 맺어



중남미 선교에 불을 지핀 '2002 이재록 목사 초청 온두라스 연합대성회(사진 1,2)와 페루 대통령 궁에 초청받아 환담을 나눈(사진 3) 후 개최된 '2004 이재록 목사 초청 페루 연합대성회(사진 4,5) 시 수많은 사람이 갖가지 질병과 연약함을 치료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사진 6~10). 지난 4월에 있었던 페루, 콜롬비아 '이희선 목사 초청 손수건 집회(사진 11~13)

국내외 1만여 자협력교회를 둔 우리 교회는 방송과 권능의 손수건을 통해 중남미 선교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는 이미 1996년부터 '아르헨티나 한인 축복 대성회 및 현지인 목회자 세미나'에 초청받아 1997년 '아르헨티나 현지인 부흥성회 및 주의 종 세미나', 2002년 '온두라스 연합대성회', 2004년 '페루 연합대성회' 시 따르는 기사와 표적, 그리고 하나님 권능의 역사로 창조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세주 되심을 널리 전파했다.

특히 강사 이재록 목사의 환자기도를 통해 수많은 사람이 에이즈, 암 등 갖가지 질병을 치료받고, 소경이 눈을 뜨며 지팡이를 버리고 휠체어에서 일어나 걷고 뛰는 역사

가 나타나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렸다.

이후 페루 및 콜롬비아 등 중남미 곳곳에 세워진 지교회와 협력교회에서 손수건 집회가 끊임없이 열리고 있다. 무엇보다 스페인어권 최대 기독교 방송사인 엔라세와 온두라스 JBN 등을 통해 많은 사람이 이재록 목사의 설교와 권능을 꾸준히 시청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

현재 이재록 목사의 설교는 정기적으로 방송되며, 특히 주일 아침에 방송되는 '이재록 목사의 생명의 말씀'은 많은 목회자의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엔라세 방송을 통해 은혜받은 시청자들이 인터넷으로 새신자 등록을 해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이재록 목사의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신앙서적이 미국 누에바 비다, 브

라질 나오스 출판사를 통해 유통되고 있다.

지난 4월 3일에는 페루만민교회(담임 이재호 목사)에서 만민 전(全) 지교회 총지도 교사 이희선 목사를 강사로 '권능의 손수건 집회(행 19:11-12)가 열렸다. '2004 이재록 목사 초청 페루 연합대성회' 준비위원장 펠리페 우아마니 목사를 비롯한 많은 성도로 성전 안팎을 가득 메웠다.

이날 강사 이희선 목사는 '참 믿음'(히 10:22)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후 전체 회개기도를 한 뒤, 기도받기 위해 줄을 선 수백 명의 성도에게 일일이 손수건 기도를 해 주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한 달여간 기도와 금식으로 준비한 성도들은 즉시 응답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20년간 휠체어에서 일어날 수 없던 기에

르모 디아즈 성도가 걷기 시작했고, 파니자 넷 다빌라 비야누에바 성도는 난소낭종을 치료받았다. 또한 벤하민 살라짜르 유아의 피부 알레르기 외에도 시력 저하, 고혈압, 당뇨, 폐질환 등 온갖 질병이 치료됐다.

한편 4월 5~6일에는 콜롬비아만민교회(담임 장정연 목사)에서 창립기념예배 및 손수건 집회를 인도했다. 로살바 로드리게스 데 링곤 엔라세 콜롬비아 사장 및 페루와 베네주엘라에서 목회자와 성도들이 참석했으며, 이희선 목사가 권능의 손수건으로 기도해 줄 때 디아나 모레노 성도는 원시물, 마릿사 빠레스 성도는 자궁근종과 알레르기성 축농증을 치료받는 등 많은 성도가 치료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성령의 역사로 더욱 활발한 중남미 선교를 기대한다.

아버지여,
내 눈물이 강을 이루어 내 마음을 적시며
이들의 마음을 적시기까지
모든 일들이 완성이 되어지고 온전함이나니

아버지여,
민망히 여기지 마소서.
사랑하나이다.

아버지여,
이 땅에서 숨이 끊어질 마지막 순간까지
아버지와 그의 사랑을 생각하겠사오매
아버지, 민망히 여기지 마소서.

내가 지금
짊어지고 가는 이 십자가의 무게가
무거워 견디지 못하는 것이 아니나이다.

아버지여,
사랑하나이다.
내가 이와 같이 십자가에 달려
피를 쏟고
내 숨을 거두기까지

아버지여,
모든 일들을 회고하며
이 사람들의 마음을 다시 상고하며
회고해 보나니

아버지여,
민망히 여기지 마시고
이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시며
아버지의 섭리와
아버지의 뜻하신 모든 일이
영영히 영영히 온전함으로 이루어지겠나이다.

{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 가시는 동안
하나님의 섭리를 회고하며 올린 고백 중에서

이재록 목사 신간 『고백』 2장 나의 신앙 되신 주님
'마음에 흐르는 회고' 100~101 페이지

Copyright © 2014 우림북

《 기획특집_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

사랑은 율법의 완성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나라”
(로마서 13:10)

성경에 기록된 율법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 행하는 만큼 빛의 자녀, 의의 자녀, 선에 속한 자녀, 사랑의 하나님을 닮은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되려면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해 나가야 합니다.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관계를 잘 이해해야

우리가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우칠 때 비로소 그 깊은 사랑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더불어 공의를 알아야 합니다.

사랑과 공의의 관계를 바르게 알아야 공의의 법칙을 정확히 적용할 수 있고, 공의를 뛰어넘는 사랑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관계를 이해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율법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을 비롯해 무엇 무엇을 ‘하라, 하지 말라, 지키라, 버리라’ 하는 계명이 많지요. ‘사랑하라, 감사하라, 기도하라, 안식일을 지키라, 죄를 버리라, 미워하지 말라’ 등의 계명들을 총칭해 율법이라 합니다.

이러한 율법을 하나님의 자녀가 지켜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공리적인 영계의 법칙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 계셔서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갚아 주신다는 공의를 기준으로 사랑 가운데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즉 죄를 지으면 벌을 받고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지만, 죄를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지요. 반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선하게 살면 응답과 축복을 받으며 천국에서 세세토록 영광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2.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는 계명들을 지키는 것

요한일서 5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는 계명들을 지켜야 할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비유를 들어 부모는 자녀가 어릴 때부터 “밖에서 놀다 집에 오면 손

발을 깨끗이 씻어야 한다, 빨간 신호등이 켜질 때는 절대로 길을 건너면 안 된다. 위험한 곳에 가면 안 된다.” 등 여러 가지 규칙을 수시로 가르칩니다. 이는 자녀를 힘들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질병이나 사고,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킴 받고 평안하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부모의 사랑과 배려이지요.

이러한 부모의 마음을 아는 자녀는 귀찮더라도 순종하려고 합니다. 더 나아가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려는 자녀는 항상 부모의 말씀을 명심하며 당부한 대로 지켜 행하지요. 이처럼 부모를 사랑해 순종하는 사람은 나쁜 길로 빠지지 않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보다 범사에 행통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의 근본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사람이 순종의 축복을 받아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도록 배려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깨우쳐야 계명을 지켜 행할 수 있습니다.

3. 계명을 지켜 행하면 응답과 축복

첫 사람 아담이 범죄한 이후, 악한 원수 마귀 사단은 항상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으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좇아서 타락해 가도록 유혹하고 있습니다(요일 2:16).

만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세상의 정욕을 좇아 범죄하는 사람의 앞길에는 고난과 재앙이 임하고 결국에는 사망이 기다릴 뿐입니다(롬 6:21).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요한일서 3장 21~22절에 “사랑하는 자들이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말씀하신 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응답과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축복을 주기 원하시지만 공의 가운데 역사하시기에 죄를 지으면 원수 마귀 사단에게 내어 주실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질병이나 사고를 만나는 등 시험과 환난이 따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은 깜깜한 어둠 속에서도 등불을 들고 가는 것과 같습니다. 등불이 있으면 넘어질 염려가 없듯이 빛 되신 하나님께서 함께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인쇄인 이호영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http://news.manmin.org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29
대표전화 02) 818-7000



-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 1번 출구에서 환승 5536번 시내버스(교회앞 하차)
 - 30분간격 교회버스 이용
 - 2, 3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 7호선 남구로역에서**
 - 2번 출구에서 구로남초등학교 방향, 도보 10분 거리
- 시내버스**
 - 5536, 5615번(교회앞 하차)
 - 503, 504, 571, 652, 5618, 5619, 5626, 5630, 5712, 5714번(디지털단지 오거리 하차)
- 교회버스**
 - 각 지역별로 서울시 및 경기도 일원에 운행
 - 문의: 차량팀(02)818-7391~3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저녁예배	3:00 PM
주일 빛과소금선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요식업선교회 예배	11:00 PM
금요철야예배	11:00 PM
수요예배	7:00 PM
화요찬양예배 [청년 가나안]	8:00 PM
빛과소금 수요찬양예배	9:00 PM
토요찬양예배 [중·고등부]	4:00 PM
토요찬양예배 [아동부]	3:00 PM
다시열차야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기구독 시 우송료만은 정기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manminnews.com 070-8240-2074

우리은행 1002-048-310140 (예금주 김연선)



만민중앙성결교회 당회장 이재록 목사

주님 가신 길을 따라 순수한 복음의 진수를 전하며 불같은 성령의 역사 가운데 전 세계 만민을 깨우고 있는 사랑과 권능의 목회자.

1982년 장년 9명과 어린이 4명이 모여 시작된 만민중앙교회를 성령의 역사 속에 전 세계 만여 지·협회 교회와 함께 사역하는 초대 형교회로 성장시켰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신 후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입증하신 것처럼 이재록 목사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권능을 통해 성경이 참된 진리임을 확증하고 있다.

2000년부터 우간다, 일본, 파키스탄, 케냐, 필리핀, 온두라스, 인도, 러시아, 독일, 페루, 콩고민주공화국, 미국, 에스토니아 등에서 대규모 연합집회 부흥사로 활발하게 사역해 왔으며 집회 시 폭발적인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 CNN에 보도된 바 있다.

특히 예루살렘에서 개최된 '2009 이스라엘 연합대성회'는 220여 개국에 중계됐고 수많은 사람이 주님을 영접해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지금도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마지막 때 전 세계 만민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이뤄 드리고자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있다.

www.drlee.or.kr

하시면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지킴 받으며 하나님의 자녀 된 권세와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4. 율법은 가장 축복된 길을 제시하는 사랑의 교과서

우리를 사랑하여 율법을 주신 하나님 편에서는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항상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주시고 구하는 대로 응답해 주실 수 있으니 얼마나 즐거우시겠습니까?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 편에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는 만큼 깨끗하고 선한 마음으로 변화해 하나님 마음을 닮아갈 수 있으니 얼마나 축복된 삶인지요.

이처럼 하나님 마음을 닮아갈 때 하나님 사랑을 더 깊이 느낄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사랑을 알며 자신도 하나님과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참된 자녀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이 땅에서 경작받는 우리 모두에게 가장 복된 길을 제시하는 사랑의 교과서라 할 수 있습니다. 원수 마귀 사단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경작받는 동안 재앙을 만나지 않는 방법과 하나님의 축복받는 비결을 알려 줍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시고자 함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율법을 지킴으로 천국에 이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5. 간음한 여인을 용서하시며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자신이 율법을 다 지키셨다고 해서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 “너희는 율법을 어겼으니 사망이다.”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한 영혼이라도 더 회개해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밤낮없이 진리로 가르치셨습니다. 또한 죄로 인해 질병과 연약함에 매인 사람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치기 위해 쉽게 일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잘 알 수 있

는 사건 중의 하나가 바로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이 예수님 앞에 끌려왔을 때의 일입니다(요 8장).

하루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하고 물었습니다.

만일 예수님의 입에서 “돌로 치라”는 한마디만 떨어지면 이 여인은 많은 사람 앞에 범죄가 드러나 빗발치듯 날아드는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지요.

이때 예수님께서 아무 말없이 땅에 그들의 죄를 쓰시며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므로 서로를 정죄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에 부끄러워진 유대인들은 하나 둘씩 그 자리를 떠나고 마침내 예수님과 여인만 남게 됐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인을 향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요. 그렇다면 간음한 여인이 범죄하면 돌에 맞아 죽는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율법을 듣고 배워서 알고 그 처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도 육체의 정욕을 이기지 못할 때는 남의 눈을 피해 가며 범죄하게 됩니다. 그런데 죄가 드러나 고통과 두려움에 처했을 때 예상치 못한 예수님의 용서를 체험했으니 이 여인은 얼마나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자 마음에 다지고 또 다졌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한다면 다시는 율법을 어기고 범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지요.

6.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는 만큼 예수님을 본받아 율법을 온전히 행할 수 있어

힘도 없고 점도 없는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 온몸에 채찍을 맞으시고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또한 십자가에 양손과 양발이 못박히는 고통을 받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생명을 주셨지요. 인류 역사상 영적인 사랑의 절정을 이루는 사건이 바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엄청난 사랑을 입었습니다. 그 사랑을 깨달을 때야 율법을 온전히 행할 능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지 않고 율법의 잣대로만 엄격하게 측정해서 사람이 범죄하는 대로 외면해 버리셨다면 이 세상에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율법의 근본 정신은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마음을 닮아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율법주의자들은 마음을 거룩하게 하는 데는 관심이 없고 율법의 외적인 형식에만 치우치면서도 자신들은 율법을 다 지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곧장 판단과 정죄를 가했지요. 오히려 율법 안에 담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치시는 예수님을 보고 잘못됐다고 정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휼과 사랑이 없이 형제를 정죄하는 율법주의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또한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힘들게 율법을 지키는 것도 원하지 않으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랑의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리 철저히 율법의 형식을 준행했어도 그들의 영혼에는 아무 유익이 되지 않았습니다. 율법의 지식을 가지고 형제에게 행한 판단과 정죄로 인해 스스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됐고, 결국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못박는 행악자가 됐을 뿐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죄악을 버림으로 마음을 깨끗하고 변함없는 영의 마음으로 일궈야 합니다. 그래야 영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지요. 또한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더욱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의 힘으로 모든 계명을 지켜 행하며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마음껏 받아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이 땅에서 경작받는 우리 모두에게 가장 복된 길을 제시하는 사랑의 교과서입니다.

원수 마귀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경작받는 동안 재앙을 만나지 않을 수 있는 방법과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을 알려 주지요.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방송, GCN!

5
MAY
2014.5.4~5.10

이재록 목사의 생명의 말씀

- 성령의 음성주관인도 2-6
- 2차 영혼육 10-14
- 사랑장 19-20
- 순전 1-2 • 일곱교회 7-11
- 요한일서 강해 9-13
- 축복 2 • 우리의 열심은
- 우리 삶의 등불 14

GCN TV설교

-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3(이수진 목사)
- 눈물의 열매 1-2(이미경 목사)
- 영의세계 15 / 말씀, 기도(이희선 목사)
- 세상을 끝자 2 / 생명수 7(신동호 목사)
- MIS강의8 / 언약계 3(정구영 목사)
- 육체의 결여(김승신 전도사)
- 어무것도 할 수 없는 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나(배영환 권위)

예능 프로그램

- 즐거운 요리 5
- 옛날 옛적에 3
- 만민 지킴이 2
- 모두 드려요 5
- 흥겨운 소리 1-2
- 알콩달콩 어여쁜 울동 24
- 찬양 드려요 21-24
-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8-12
- 황기 21-24 • English 10-12
- 뷰티풀라이프 1-2
- 폴리리스트 2-3

해외성회 프로그램

- 인도연합대성회 1
- 회상 3, 6

GCN 방송

위성, 인터넷, 인터넷TV방송 A/S 문의 **1577-2073**

“영혼이 잘되는 축복을 받으니 만사형통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에 다녔지만 성경에 기록된 기사와 표적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에 대해 체험이 없다 보니 주일에 대예배만 참석하고 탁구, 당구, 바둑, 고스톱 등 오락을 즐겼습니다. 그러면서 구원은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신종질환인 공해병으로 7년 동안 투병하던 처사촌(박흥기 장로)이 1997년 5월, 만민중앙교회에서 열린 '2주 연속 특별 부흥성회' 시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기도를 받고 깨끗이 치료받은 것을 알게 됐습니다.

2002년,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자 온 가족이 만민중앙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어머니는 10여 년 전에 허리를 다쳐 등뼈가 훑 같이 돌출돼 고통이 심했습니다. 그런데 당회장님의 기도를 받은 후 15분 정도 어머니의 돌출된 등뼈가 꿈틀 꿈틀 움직이더니 뼈가 들어가고 통증이 사라졌지요.

저는 어머니를 치료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매우 감사해 그렇게 좋아하던 오락도 단번에 끊어버리고 각종 예배를 드리며 기도에 힘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해 은혜받을 수 있는 자리에 열심히 참석했고, 주신 사명도 최선을 다해 감당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제 자신을 발견하니 '가부장적인 저로 인해 가족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깨우침이 왔습니다. 아내는 제 말에 복종해야만 했고, 자녀들이 제 말을 듣지 않으면 화를 내기 일쑤였지요. 하지만 당회장님은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고 성도들을 자신의 생명보다 소중히 여기며 사랑하셨습니다. 또한 환자들을 위해 진액을 다해 기도해 주셨지요.

저는 당회장님을 본받아 완전히 변화되리라 다짐했습니다. 이때부터 모든 것을 내 중심적이 아니라 아내와 자녀들에게 맞춰 생각하며 섬겼습니다. 자녀들이 기도 생활을 잘하지 못하고 미

지근한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다그치지 않고 최대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사는 곳이 인천이라 자녀들의 믿음으로 서울에 있는 교회에까지 가서 기도하는 것이 무리가 될 때에는 지성전이나 집에서 GCN 방송으로 다니엘철야 기도회에 참석

해 함께 기도했지요. 언젠가는 변화돼 뜨겁게 신앙생활 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격려했습니다.

2010년 말부터 저는 성경과 사랑장, 팔복,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등 당회장님의 주옥같은 설교 말씀을 보고 듣기를 즐겨했습니다. 깨우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열심히 기도하는 만큼 아내와 자녀들도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변화되기 위해 힘썼습니다. 마침내 가족 모두가 아름다운 영의 마음을 이뤄 가장 좋은 천국 새 예루살렘을 향해 믿음의 경주를 하는 행복한 가정이 됐습니다.

현재 주의 종이 된 딸 구희선 전도사는 21교구 교구장으로, 아들 구경회 형제는 예능위원회 소속 하모니팀으로, 아내 이현숙 권사는 기도예 전담하는 기도제물연합회 기관장으로, 저는 2장로회 부회장, 남지역장연합회 부회장 등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또한 사명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 일을 최우선으로 하니 하나님께서는 사업터 축복과 사회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2003년 1월, 세무회계사무소를 개업한 후 11년 연속 수입금액으로 증가했으며, 사회에서는 '성실한 사람', '실력 있는 사람', '정도 경영' 등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국세 행정에 협조한 공로를 인정받아 기획재정부장관상, 국무총리상을 수상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지요.

현재 북인천지역 세무사회 회장, 북인천세무서 공평과세위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임교수 등 재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영혼이 잘되는 축복을 받아 간증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아내 이현숙 권사와 함께한 구평서 장로 (세무법인 경인 대표세무사, 59세)



“이제 정상적으로 걸을 수 있어 기뻐요”

저는 양쪽 요골(허리뼈)에 결손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한 살 때 대퇴골을 제거해서 끼워 맞추는 수술을 받아야 했고, 열 살까지 다리에 90도 각도의 깁스를 하고 지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도 다닐 수 없었고, 집에서 침대생활을 해야만 했지요.



양헬리카 오소리오 자매 (콜롬비아만민교회, 16세)

어느 날, 엔라세 방송을 통해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권능에 대해 알게 된 어머니는 제게 믿음으로 치료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믿어지지 않았지만 저희 가족이 콜롬비아만민교회에 등록한 후에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간증책자를 통해 저보다 더 많은 질병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단번에 치료받은 사실을 알고 제 마음은 큰 기쁨과 희망이 샘솟았던 것입니다. 저도 치료받을 수 있겠다는 확신을 갖고 기도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4월 5일과 6일, 콜롬비아만민교회 창립 2주년을 맞아 만민 전(全) 지교회 총지도교사인 이희선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저는 손수건 집회에 참석해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참으로 믿지 못했던 것과 사람들을 미워했던 것 등을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권능의 손수건 기도(행 19:11-12)를 받았더니 척추가 똑바로 펴졌고 더 이상 아프지 않았지요. 할렐루야!

휘었던 척추와 다리가 바르게 펴져 다리를 절지 않고 정상적으로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치료해 주시고 응답해 주심에 깊은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철야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부산만민성결교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168 ☎070-8223-4191~4, 010-9818-9833
- 서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로 103, 백성 B/D 7층 ☎051326-1537, 010-5521-2073
- 해운대만민교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광어골로 76, 3층 ☎010-8020-7333
- 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남로 50 ☎053356-4717, 010-4575-1934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26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550번길 39-33 ☎062513-2455, 010-8888-0727
- 새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차평로 60 302호 ☎062372-1002, 010-3771-7970
- 동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월동로 82-10 ☎062266-7001, 010-3637-6443
- 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울질로355번길 12-1 ☎0521257-5011, 010-2485-1537

- 남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남외동 산전길 9 ☎0521291-2253, 010-2505-1537
- 안성만민교회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진말길 64 ☎031652-9981, 010-3278-7712
- 연천만민교회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백왕로 234번길 25-4 ☎031835-1717, 010-2634-5478
- 천안만민성결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길 5 ☎041577-7077, 010-3447-7077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변영로 34 3층 ☎041881-7000, 010-3030-7025
- 서산만민교회 충남 서산시 잠동1길 24 ☎041667-4721, 010-2781-2073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변영로169번길 22 ☎041546-1537, 010-2672-0244
- 사랑만민교회 충남 계룡시 금암로 135 ☎042841-0091, 010-7195-1099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흥덕구 구룡산로326번길 32 ☎043293-7077, 010-9271-7017
- 새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울봉로176번길 62 ☎070-4823-7173, 010-8291-7173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로 7 두진상가 201호 ☎043845-0617, 010-2278-0641
- 마산만민성결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무학로 654 ☎055247-8891~2, 010-5527-2073

- 말양만민교회 경남 말양시 시청서길 36 ☎055353-9192, 010-9382-2073
- 진주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안길 17, 2동 3호 ☎055852-5815, 010-9196-3927
- 김해만민교회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2421 3층 ☎055322-7055, 010-6605-2254
- 창원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연덕로184번길 28, 5층 ☎055289-9522, 010-9331-4405
- 통영만민교회 경남 통영시 용남면 남해안도로 529-32 ☎055648-9107, 010-7224-8891
- 거제만민교회 경남 거제시 옥포로22길 27, 3층 ☎055687-6882, 010-3800-2048
- 경주만민교회 경상북도 경주시 백률로 76번길 45-1 ☎054748-5777, 010-3747-5777
- 포항만민성결교회 경북 포항시 북구 중앙로 177 4층 ☎054281-9367, 010-8433-2073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5 3층 ☎054281-2468, 010-7940-9367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6길 30 ☎054920-4512, 010-3343-1537
- 여수만민성결교회 전남 여주시 둔덕3길 11-2 ☎061652-8311, 010-7317-2073
- 목포만민성결교회 전남 목포시 용당로 281, 종원빌딩 301호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해제지로로 167-82 ☎061452-7443, 010-3153-1723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못등길 27, 2층 ☎070-4028-2515, 010-2536-2515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철길 30 ☎063223-9991, 010-4202-1537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평동로2길 6, (3동2층) ☎063853-0675, 010-3637-0263
- 군산만민교회 전북 군산시 상나운안길 11, 3층 ☎063468-7027, 010-7777-7027
- 춘천만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순환대로 637, 2층 ☎033261-4217, 010-2759-7017
- 원주만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5길 57 (개운동) ☎033766-1535, 010-9108-2073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변영로 238, 2층 ☎033637-0271, 010-7733-1327
- 강릉만민교회 강원도 강릉시 하평3길 11, 3층 ☎033641-3790, 010-6334-7750
- 제주만민교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도9길 55-4 ☎064745-0675, 010-2468-2251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2 ☎02995-9951, 010-2276-1014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안로 22, 은성빌딩 3층 ☎031485-9143, 010-5583-4697
- 인천지성전 인천광역시 남구 석정로 424, 3층 ☎032489-9857, 010-7127-2073
- 결단지성전 인천시 서구 마천동 698-12 ☎010-3430-3312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95 ☎010-7103-4097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18, 아원B/D ☎031905-2419, 010-2276-101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031552-7397, 010-8163-1537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호유빌딩 지하 ☎02489-3766, 010-7103-4097
- 부평지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112, 5층 ☎010-3430-3312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200번길 43, 2층 ☎031202-8480, 010-7127-2073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중리천로 126-7 ☎031635-9103, 010-7103-4097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031840-2906, 010-8163-1537